

세계정당인들과 함께 국민운동으로 상선권 확대하라.

임핑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역 인근
- (당첨후환영) 1C 영수증 100% 지급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320-7700



■ 허정무호 북한전 최종 엔트리 23명 확정

이천수 '합류'
박주영 '탈락'

해외파 박지성·이영표 제외



박주영

공격진 '젊은 피' 수혈...스피드·패기 보완

'지금 태극전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와 패기!'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북한전(9월10일)을 앞두고 28일 23명 엔트리를 발표한 가운데 공격진 물갈이와 올림픽대표들의 합류가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격진 전면 개편이다. 허정무 감독은 3차 예선에 나섰던 박주영(서울), 고기우(전남), 설기현(풀럼), 안정환(부산) 등 4명을 빼고 서동현, 신영록(이상 수원), 이근호(대구), 조재진(전북)을 발탁했다.

설기현은 3차 예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플레이로 팬들의 눈총을 받았지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전방 공격수로 보직을 바꿔 골을 터트리는 활약, 리그 적응 배려 차원에서 발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코칭스태프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기우와 안정환, 박주영은 K-리그는 물론 대표팀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탈락의 주요 원인이다.

고기우는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 장악을 주문받았지만 코칭스태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안정환 역시 스피드가 떨어

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박주영은 베이징올림픽 조별리그 1차전에서 행운의 프리킥골을 터뜨렸지만 컨디션 난조에 따른 자신감 결여와 무릎도 좋지 않아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코칭스태프의 판단이다. 이들을 대신해 올해 K-리그에서 11골을 터트렸지만 아쉽게 박성화호에서 탈락했던 서동현을 비롯해 올림픽대표팀에서 활약한 신영록(수원)과 이근호(대구) 등 패기와 스피드가 좋은 '젊은 피'를 선택했다.

허정무 감독은 부상 재발을 이유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일찌감치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했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김두현과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 오범석(사마라FC), 김남일(빗셀 고베) 등 해외파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허정무 감독은 기존

고참급 선수들의 부진을 7명의 올림픽대표팀 선수로 보강하면서 최종예선을 자연스레 세대교체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 3월 이후 허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조재진은 K-리그에서 8골이나 기록하는 활약을 앞세워 포스트 플레이를 위한 전방 스트라이커 요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지난해 아시안컵 이후 1년여 만에 대표팀에 뽑힌 이천수(수원)와 최성국(성남)도 관심거리다.

이천수는 지난해 아시안컵 이후 페예노르트(네덜란드) 진출과 발목 부상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워낙 의욕이 뛰어났고 지난 27일 K-리그 컵 대회에서 북귀골을 터트리면서 자신감을 확실히 찾은 게 허 감독의 결

심을 굳히게 했다. 최성국도 지난 2일 한일 프로축구 올스타전에서 MVP를 차지하고 K-리그에서도 7골 3도움의 좋은 활약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어 오랜 만에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다. 측면공격의 활로를 찾고 싶어 하는 허정무 감독으로선 발 빠르고 드리블이 뛰어난 '이천수-최성국 카드'는 최상의 선택인 셈이다.

이밖에 기성용(서울)이 베이징올림픽에서 보여준 활약을 바탕으로 허정무호에 처음 입성한 것도 인상적이다. 고인거리에던 수비라인도 김진규와 김치곤(이상 서울)을 발탁하면서 이정수(수원)의 발가락 골절과 발목수술 이후 회복중인 광태휘(전남)의 빈자리를 메우게 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최종예선 남북전 명단(23명) ▲GK = 김용대(광주) 김영관(울산) 정성룡(성남) ▲DF = 강민수(전북) 조용형(제주) 김동진(제니트) 김진규 김치곤 김치우(이상 서울) 최효진(포항) 오범석(사마라) ▲MF = 김남일(빗셀 고베) 이청용 기성용(이상 서울)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 김정우(성남) 이호(제니트) 이천수(수원) 최성국(성남) ▲FW = 신영록 서동현(이상 수원) 이근호(대구) 조재진(전북)

“최고의 기량 갖춘 선수 뽑았다”

■ 허정무 감독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28일 “팀 밸런스를 고려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뽑았다”고 선발 기준을 밝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부활을 노리고 있는 설기현(풀럼)과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전격

이적한 이영표는 팀 적응을 위해 부르지 않았다.

그는 또 정성룡(성남), 이근호(대구), 신영록(수원), 강민수(전북), 김진규, 기성용, 이청용(이상 서울) 등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23세 이하 '젊은 피'들을 대거 발탁한 데 대해서는 “올림픽대표 출신 선수들이 그동안 A대표팀에도 수시로 발탁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 새로운 선

발은 아니다. 이근호, 이청용 등 몇몇 선수들은 계속해서 대표팀에서도 선을 보였다. 김진규의 경우 올림픽대표팀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높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2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컵 수원-인천전을 직접 관전했던 허 감독은 타박상으로 결장한 공격수 신영록에 대해서 “선수 본인과 직접 통화도 했



고, 몸 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표팀 훈련 및 경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선발했다”고 전했다.

반면 올림픽대표팀과 A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뛰어왔던 공격수 박주영(서울)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최근 컨디션 난조로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영표 독일서 떠날
도르트문트로 이적



계 기회가 찾아왔다. 도르트문트의 주전 왼쪽 윙백 브라질 출신 데데(30)가 지난 16일 바이에른 레버쿠젠과 올 시즌 개막전에서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것.

이영표 에이전트에 따르면 윙백 도르트문트 감독은 데데의 빈 자리를 메워줄 '즉시 전력감'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영표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러브콜을 보냈다.

새로운 팀을 몰색하던 이영표도 이적의 가장 우선 조건이던 '주전 보장'이 이뤄진 데다 자신이 제시한 계약 조건을 도르트문트가 대부분 수용했다.

최복음·장동철 등 5인조
세계남자불링선수권 '銀'

한국이 2008 세계남자불링선수권대회 5인조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복음-장동철(이상 광양시청)-최용규(한국체대)-김태영(부산시청)-홍해솔(경북도)이 한 조를 이룬 대표팀은 27일 밤 태국 논타부리에서 끝난 대회 5인조 결승에서 미국 대표팀과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39-49로 어렵게 2위를 차지했다.

예선에서 총 6천571점을 기록해 4강 토너먼트에 1위로 진출한 한국은 준결승에서 핀란드를 1136-1035로 눌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목포여고 결승 진출
대통령기 시도대항하기

목포여고가 제2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하키대회 결승에 진출, 우승을 노린다.

목포여고는 28일 목포 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3일째 여고부 4강전에서 김해여고를 4-1로 제압하고 지난해에 이어 2연 연속 패권을 노리게 됐다.

목포여고는 광택여고를 2-1로 꺾고 결승에 올라 지난 2000년 14회 대회 후 8년만에 패권에 도전하는 부평여고와 29일 오후 4시 결승전을 벌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올림픽 금 축하 자동차 경품

오늘부터 홈 3연전 관중 대상

KIA타이거즈가 '올림픽 금메달 획득 축하 이벤트'를 열고 자동차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KIA는 29일부터 펼쳐지는 우리 히어로즈와의 홈 3연전 관중을 대상으로 '포르테'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가이자동차의 협찬으로 마련된 '포르테' 자동차는 31일 경기 종료 후 경품 추첨을 통해 제공되며, 이외에도 도무코 면도기·CNK 안마기·청소기·에버랜드 무료입장권 등 푸짐한 경품을 마련했다.

홈 3연전에서는 한국 야구 대표팀에 참가했던 이용규·윤석민·한기주의 팬 사회화와 포토타임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1군 복귀...선발 출장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8일 1군 등록과 함께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전에 선발 출장했다.

하라 다스노리 감독은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좌완 데이브 윌리엄스였지만 이승엽을 6번에 포진시키며 믿음을 나타냈다.



28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골프장에서 열린 '2008 하이원컵 챔피언 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신지애가 선배 구옥희(왼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라이버 샷을 하고 있다. 신지애는 69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함평다이너스티 내달 민속놀이 이벤트



함평다이너스티CC는 이번 추석 연휴동안 휴장없이 정상 영업한다.

광주CC 입장료 인하

추석 연휴 정상 영업

○4개월 양간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동안 19홀 민속놀이 대잔치를 벌인다.

민속놀이 대잔치는 내장객이 민속놀이 옷놀이, 투호, 제기차기 3게임중 하나를 선택해 당첨 되면 레스토랑에서 동동주와 두부김치를 제공한다. 옷놀이는 팀원 전원이 3회 실시 후 함께 9점 이상이면 당첨이고, 투호는 팀원 전원 10발 중 5발 이상 성공하면 된다. 제기차기는 팀원 전원 5회 이상 성공 시 당첨이 된다.

또 임페리얼 3번홀(파4·370m)에 '보름달 쏘'를 운영, 티샷 후 공이 보름달 존으로 들어갈 경우 팀원 전원에게 생맥주 500cc와 마른안주를 제공한다.

○... 광주CC가 최근 입장료를 인하했다. 광주CC는 비회원 입장료를 월요일~화요일 1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내렸으며 수~금요일은 13만원에서 11만원으로 2만원 내렸다.

토요일은 1부 3팀(10명)이상 단체에 한해 16만원으로 할인해주며 월요일은 18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2만 5천원 내렸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티오프 시간을 2부제로 운영한다.

주말 1부 오전 6시~8시 30분, 2부 11시 40분~2시20분이며 주중에는 1부 오전 7시~9시 20분, 2부 12시~오후 2시까지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추석 당일 전통카트 쉼터 운영(NO 캐디)을 하고, 요즘은 '보름달 쏘'를 운영, 티샷 후 공이 보름달 존으로 들어갈 경우 팀원 전원에게 생맥주 500cc와 마른안주를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